

불안정 성인애착이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대상과 정신화의 매개효과*

김 태 사

안 명 희†

서강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 자기대상과 정신화가 관여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타인으로 부터의 공감적 수용과 지지를 내재화한 자기대상과, 정서조율과 성찰능력 등으로 평가한 정신화를 매개로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경로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외상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성인남녀 822명(N=822)의 자기보고 설문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기대상과 정신화를 순차적, 부분 매개로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좋게 나왔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기대상과 정신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자기대상은 정신화와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신화는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데, 자기대상에 비해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차이가 있어,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정신화가 낮아졌고, 회피애착이 심할수록 자기대상이 낮아졌다. 본 연구결과의 상담적 의의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에 포함하였다.

주요어 : 심리적 역경 후 성장, 불안정 성인애착, 정신화, 자기대상

* 본 연구는 김태사(2013)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불안정 성인애착이 역경을 통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대상과 정신화의 매개효과'를 요약·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안명희,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Tel : 02-705-8837, E-mail : Christine@sogang.ac.kr

상담 장면에서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내적 자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또 다른 힘든 상황 혹은 외상사건을 만나 더욱 고통받는 내담자를 대면할 때가 있다. 반면 반복적인 외상 경험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다하더라도 이 고통을 잘 감내하며 심리적 성숙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심리적 외상 경험에 대처하는 과정에 드러나는 개인차를 상담적 개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적 외상(trauma)은 일반적 스트레스의 범주를 넘어 삶의 기반을 흔드는 위협으로 지각된 사건과,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기존의 가정과 상충되는 심리적 경험이다. 관련 연구는 그 병리적 양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점차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개인의 심리적 현실 속에는 고통스럽고 병들어가는 부분과 성숙을 향한 동기가 공존한다는 관점으로 전환되어왔다(최승미, 2008; Joseph & Linley, 2006; Linley & Joseph, 2004, 2005; Tedeschi & Calhoun, 2004). 최근에는 심리적 위기 사건 이후에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심리적 외상을 심리적 역경(adversary)으로 칭한다(Joseph & Linley, 2006). 그리고 심리적 역경을 경험한 후에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전반적인 삶의 질적 향상을 심리적 역경 후 성장(adversarial growth)이라 정의한다(Joseph & Linley, 2006; Tedeschi & Calhoun, 2004).

관련 연구들은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관계적 맥락에서 활성화되는 역경에 대한 조망, 특히 역경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수용을 중요시한다(Joseph & Linley, 2006; Schaefer & Moos, 1992; Tedeschi & Calhoun, 2004). 심리적 역경 후 성장은 개인이 역경에 관련된 사고와 감정을 내적으로 형상화(mentalize)하고 조절하여 이에 대한 의미를 성찰하고 수용할 수 있

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서조율 능력과 반성적 기능(reflective function)은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서적 지지자의 존재를 전제한다. 따라서 심리적 역경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Joseph & Linley, 2006; Linley & Joseph, 2004; Schaefer & Moos, 1992; Tedeschi & Calhoun, 2004). 한편 사회적 지지의 활용은 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내면화 할 때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유영란, 2006). 심리적 역경의 적응적 대처에 필요한 타인의 존재 가치를 내면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내적인 역량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자기심리학(Kohut, 1971, 1984)에서는 이 심리내적 역량이 자기대상(selfobject)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자기대상이란 마음속에 자리하여 정서적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타인의 존재로,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자기응집성(cohesive self)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진행된 심리적 역경 후 성장 관련 경험 연구들은 자아탄력성, 낙관성, 심리적 강인성, 정서지능, 적극적 대처, 긍정적 재평가, 혹은 사회적 지지 등 개별적 성격특성과 사회적 요인들이 심리적 역경 후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밝히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송현, 2011; 최승미, 2008; Linley & Joseph, 2004). 즉, 심리적 역경 후 성장을 주도하는 보다 본질적인 자기내적, 역동적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 초기의 주 양육자와의 친밀한 대인관계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과 대인관계 관련 사고와 정서조절 전략을 반영하는 성인애착이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

이 심리적 역경 후 성장의 핵심변인으로 강조한 사회적 지지를 근본적으로 자기존재와 가치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타인의 정서적 공감과 지지를 내재화하는 능력인 자기대상(selfobject)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가정했다.

자기심리학에서 자기(Self)란 개인의 심리적 우주의 중심이며, 공간적으로 응집되어 있고,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며, 주도적으로 경험과 지각을 수용하는 하나의 단위를 의미한다(Kohut, 1971, 1984). 생애초기 미발달된 자기(rudimentary self)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즉 자기대상 경험을 통해 응집된 자기(cohesive self)를 형성해간다. 성장과정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무난히 소화한 정도는 정신건강의 지표가 된다. 응집된 자기(cohesive self)의 발달과 유지를 위해서는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인 자기대상 경험이 필요하다(홍이화, 2011; Kohut, 1984).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만날 수 있는 교사나 멘토, 성인기에 만날 수 있는 연인, 배우자, 동료, 선배, 직장 상사 혹은 상담자나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경험될 수 있다(홍이화, 2011). 이처럼 자기 응집성 발달의 필수 조건인 자기대상(selfobject)은,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타인과의 융합과 연대감을 통해 취약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에 대처하는 힘을 제공한다. 그리고 타인의 인정과 공감으로 자기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울 자기대상’,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고 불안을 완화하는 ‘이상화 자기대상’, 그리고 타인의 말 없는 현존으로 내적인 삶을 이해받는 ‘쌍둥이 자기대상’을 포함한 세 가지 하위유형 혹은 기능으로 설명된다(Kohut, 1984). 자기심리학적 관점에서 심리적 역경 후 성장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응집성을 유지하여 더욱 견고한 자기

(Self)가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기대상의 존재로 인하여 자긍심과 자기 확신으로 드러나는 건강한 자기에가 고도로 성숙된 경지에 이르면, 공감, 유한성의 수용, 그리고 지혜가 성격적 덕목이 된다(Kohut, 1966, 1971). 한편 자기대상과의 융합경험이 없으면 긴장과 불안을 다루는 정신구조의 성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Kohut, 1971, 1977, 1984). 이처럼 자기대상 경험은 긴장과 불안을 다루는 정신구조의 성립, 정서조절, 자기 공감으로서의 수용, 유한성 인정을 전제로 한 삶의 의미와 자기와 타인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성찰능력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역경 속에서도 자기대상 경험을 통해 응집된 자기를 유지할 수 있으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들어 정신역동적 심리치료와 애착이론을 기반으로 한 경계선 성격장애의 심리치료 과정(Fonagy, 2001)에서도 자기와 타인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성찰적 능력을 중요시하고 이를 정신화(mentalization)능력이라 정의한다. 정신화(mentalization)는 “사고와 감정에 대한 사고와 감정”(Allen, Fonagy, & Bateman, 2008)으로, 개인의 욕구, 감정, 신념 등에 기초하여 자신과 타인의 행동의 의미를 내재적, 외현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다(Fonagy, 1991). 정신화 능력은 안정애착일수록 그 수준이 높아, 애착외상이나 관계적 외상의 보호요인이라 알려져 있다(Fonagy, 2001; Wallin, 2007). 불안정 성인애착이 정신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기존 경험 연구들은 정신화 능력을 타인에게 공감적으로 수용 받은 경험에서 함양된 정서조율과 성찰능력으로 이해한다. 즉, 정신화 능력은 생애초기에 자기의 감정상태를 충분히 공감 받고, 반향 받은 경험을 전제로 발달한다고 본다(Fonagy, 2001;

Wallin, 2007). 따라서 자기대상경험은 정서조절, 자기공감으로서의 수용과 성찰능력, 즉 정신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화 관련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로, 대부분의 관련연구들은 정신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개념을 선정한 후 그 하위개념을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들을 활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신화를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 정신화를 정서자각(Affect Consciousness), 공감(Empathy), 마음챙김(Mindfulness), 그리고 심리적 자의식(Psychological Mindedness)을 포함하는 네 가지 중첩적인 구조(Choi-Kain & Gunderson, 2008)로 평가해 왔다. 최근에는 정서자각, 공감, 탈중심화, 심리적 자의식(Graling & Liem, 2012), 수용과 탈중심화(유윤경, 2011) 혹은 정서조절능력(이현주, 안명희, 2012)으로도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정신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은 부족하다. 또한 정신화를 심리적 역경 후 성장의 영향요인으로 탐색한 연구가 없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개인의 내적작동모델에 영향을 끼치는 기제는 애착관련 사고와 정서에 대한 과잉활성화와 비활성화의 정도로 구분된다(Wei, Vogel, Ku, & Zakalik, 2005). 불안애착은 정서적 대처에 있어서 과잉활성화 전략인 과민반응을 발달시켜 사소한 위협을 과장되게 지각하고, 심리적 고통을 강하게 호소하며, 쉽게 감정에 휩싸이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을 보인다(Mikulincer & Shaver, 2007; Wei et al., 2005). 반면 회피애착은 비활성화 전략인 정서적 단절을 발달시켜 내적인 정서적 경험에 대해 방어하고 부인하려는 성향을 보인다(Cassidy & Kobak, 1988; Mikulincer & Shaver, 2007; Wei et al., 2005). 불안애착은

타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반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고, 회피애착은 타인과 거리를 두기 위해 억제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한다(Kobak & Sceery, 1988). 따라서 불안애착은 관계에 대한 집착과 몰입 그리고 친밀한 대상과의 근접성 추구경향이 높다. 반면 회피애착은 애착 관련 정서나 사고에 과도하게 방어적이며 타인에 대한 정서적 의존을 자제한다(안명희, 2010). 회피애착이 근접성 또는 지지 추구를 적게 하여 거리를 유지하는 반면, 불안애착은 울거나 토라지는 등의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간접적으로라도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방어적 양식에 의존한다(Collins & Feeney, 2000; Fraley & Shaver, 1998; 안하얀, 서영석, 2010 재인용; Mikulincer & Shaver, 2007). 이와 같은 불안정 성인애착의 하위유형별 특징을 감안하면, 강렬한 정서에 매몰되기 쉬운 불안애착 유형이 회피애착 유형에 비해 정신화에 있어 더 큰 곤란을 겪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불안정 성인애착은 관계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양상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의 하위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기대상과 정신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심리적 역경 후 성장과 관련하여 검증한 경우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 자기대상과 정신화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불안정 성인애착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과 애착관련 사고와 정서에 대한 대처양식을 주도한다. 불안정 애착은 성찰능력을 통해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으로(김진수, 서수균,

2011),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는 직접적인(유영란, 2006; 이경희, 2001) 영향을 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성찰능력을 통해 외상 후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신선영, 2009).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은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자기대상과 정신화가 매개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측정된 불안정 성인애착이 역경 당시 중요한 타인을 자기대상(selfobject)으로 경험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대상은 역경에 대한 정서자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탈중심화, 그리고 경험의 의미에 대한 성찰능력 즉, 정신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한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애착관련 사고와 정서에 대한 과잉 혹은 비활성화 전략을 쓰는 것으로 개념화되므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기대상과 정신화를 매개로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구체적 경로를 달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역경을 경험한 내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개입에 필요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기대상을 부분 매개로 정신화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화가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구조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자기대상과 정신화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이들을 불안정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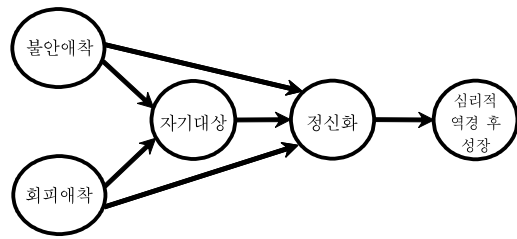


그림 1. 이론적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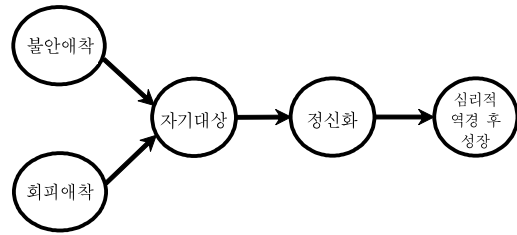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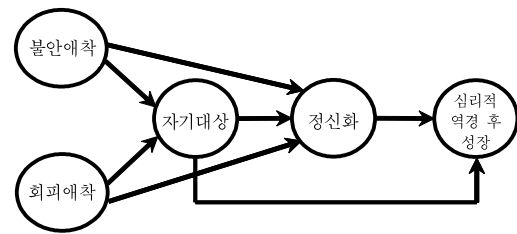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 2

인애착 혹은 심리적 역경 후 성장의 관점에서 검증한 경우가 없어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기대상을 완전 매개로 정신화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화가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경쟁모형 1로 설정하였다. 한편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기대상이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하여 경쟁모형 2로 설정하고 모형간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심리적 역경을 경험한 성인기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만 19세~59세의 성인 남녀를 임의 표집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심리적 역경 경험 질문지를 통하여 살아오는 동안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심리적 경험을 떠올리게 한 뒤, 주관적 고통의 정도가 보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2012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에 걸쳐 서울, 경기 지역 소재의 대학, 직장, 가정에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고, 901부의 자료가 회수되었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경우 및 심리적 역경을 경험한 적이 없다거나 그 주관적 고통의 정도가 보통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79부를 제외하고, 822부를 최종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5.3세(SD=9.37)이며,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30.4%, 30대가 35.5%, 40대가 25.5%, 50대가 7.5%였다. 성별은 남성이 231명(28.1%), 여성이 589명(71.7%)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나, 성별에 따른 핵심변인들의 유의미한 평균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직(34.2%), 사무직(22.0%), 대학생(17.4%), 주부(13.7%), 기타(5.5%), 자영업(4.6%), 취업준비생(1.6%), 무직(0.7%), 생산직(0.1%), 무응답(0.1%)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역경의 주관적 고통의 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고통스러웠다'에 416명(50.6%), '고통스러웠다'에 324명(39.4%),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정도였다'에 응답하였다. 심리적 역경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별·실연·절교와 같은 대인관계 파탄(16.2%),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14.8%), 낙방·실패·좌절과 같은 학업·과업 문제(10.9%), 거짓말·외도·속임·사기와 같은 배신·충격(9.9%), 재정적 어려움(7.7%), 소외나 따돌림 같은 적응의 어려움(7.1%),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6.6%), 본인의 심각한 신체 질병(5.1%), 이혼 및 별거(4.5%), 사고 및 상해(3.3%), 실직·구직의 어려움(3.2%), 성추행 및 성폭력(1.8%), 어린 시절 학대(1.7%), 구타·폭행·강도 등 범죄피해(1.2%), 자연재해(0.6%), 기타(5.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불안정 성인애착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개정판 성인용 친밀 관계의 애착척도(Encounter in Close Relationship Scale-Revised: ECR-R, Brennan, Clark, & Shaver, 1998)를 사용하여 불안정 성인애착을 평가하였다. ECR-R은 성인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즉, 가까운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과 회피의 정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각각 18 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Likert-Type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불안애착은 .89, 회피애착은 .85의 내적 신뢰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불안애착은 .92, 회피애착은 .87의 내적 신뢰도를 보였다.

자기대상

자기대상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들 중 Kohut(1984)이 제시한 거울 자기, 이상화 자기, 그리고 쌍둥이 자기대상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측정하였다. 자기에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울 자기대상과 취약한 자기 자신을 보

호하고 불안한 느낌으로부터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힘을 제공받는 경험으로서의 '이상화 자기대상'은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유희정(2012)이 수정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중 평가적 지지(6문항)와 정서적 지지(7문항)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Blumenthal 등(1987)이 개발하고 김희정, 권정혜, 김종남, 이란과 이진숙(2008)이 번안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중에서 중요한 타인의 지지(4문항)로 다른 사람의 말 없는 현존으로 인하여 내적인 삶을 이해받는 경험으로서의 '쌍둥이 자기대상'을 측정하였다. 5점 Likert-Type 척도(1=전혀 그렇지 않았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총 17문항의 자기대상 척도의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는 전문가 1인을 통하여 검토 받았다. 유희정(2012)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는 평가적 지지가 .91, 정서적 지지가 .92, 김희정 등(2008)의 연구에서 중요타인의 지지가 .89로 나왔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는 하위요인별로 .94, .96, .92이며, 전체 신뢰도는 .98이다.

정신화

본 연구에서 정신화는 정서자각, 수용, 탈중심화 그리고 성찰능력을 지표로 측정하였다. 정서자각은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그리고 Palfai(1995)가 개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 특질 메타-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명료성(11문항), 정서적 주의 집중(5문항), 그리고 정서적 회복(5문항)을 포함한 총 21문항의 5점 Likert-Type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는 각 하위요인별 .84~.7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84로 나왔다.

수용은 허재홍, 최명식과 진현정(2009)에 의해 타당화된 개정판 수용 행위 질문지(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II: AAQ-II)로 측정하였다. 수용행위 질문지는 심리적 유연성(psychological flexibility)과 경험적 회피(experiential avoidance)의 수준을 측정하는 총 10문항의 5점 Likert-Type 척도(1=전혀 아니다, 5=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원판 AAQ-II의 내적 신뢰도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80이다.

탈중심화는 김빛나(2008)가 번안한 경험질문지(Experiences Questionnaire: EQ)(Fresco et al., 2007)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탈중심화의 조작적 정의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대하여 탈매몰된 관점에서 경험하는 과정으로 보고,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부정적 경험에 자동적이고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자기를 수용하는 능력을 측정한다(Fresco et al., 2007). 총 11문항의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Type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거의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김빛나(2008)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78이며,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88이다.

성찰능력은 Steger, Frazier, Oishi 그리고 Kaler(2004)가 개발하고, 원두리, 김교현과 권선중(2005)이 번안, 타당화한 삶의 의미 척도(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주관적 감각인 의미존재(5문항)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지향과 추동인 의미추구(5문항)를 포함한 총 10문항의 5점 Likert-Type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원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90

이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왔다.

심리적 역경 후 성장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2007)이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사용하여 심리적 역경 후 성장을 측정하였다. K-PTGI는 자기지각의 변화, 대인관계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 발견,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라는 4가지 요인,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6점 Likert-Type 척도(1=경험 못했다, 6=매우 많이 경험했다)로 평정하였다. 송승훈(2007)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는 .93이다.

심리적 역경

심리적 역경을 경험하게 한 사건의 종류와 시기, 주관적 고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송승훈(2007)이 제작, 신선영(2009)이 보완한 심리적 역경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힘들고 충격적이었던 경험들을 16가지 유형으로 정하여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도록 한 뒤,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하나만 선택하여, 이 경험을 전제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심리적 역경을 경험하였던 시기를 물었으며, 주관적 고통의 정도를 5점 Likert-Type 척도(1=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 5=매우 고통스러웠다)로 평정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표본의 기술통계 분석을 위

해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계산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내적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고,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AMOS 18.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홍세희(2000)의 제안에 따라 χ^2 값, TLI, CFI, NFI, RMSEA를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결측치는 AMOS의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식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김계수, 2010). 더불어 관련 변인들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정신화와 자기대상에 있어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 검증하기 위하여 Fisher's z-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변인들 간의 관계

본 연구에 대상이 된 성인들은 주로 심리적 고통스럽거나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던 사람들로,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보통 수준 이상의 자기대상 경험을 하고, 역시 보통 수준 이상의 정신화 능력을 통해, 이와 같은 고통을 기반으로 나쁜 성장을 한 집단이라고 하겠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측정 점수의 높고 낮음(2.5점 기준)의 조합으로 네 가지 범주의 애착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회피형이 33.2%, 불안형이 9.4%, 두려움형이 27.9%, 안정형이 25.7%로 연구대상은 전반적으로 회피형, 불안형, 두려움형을 포함하는 불안정 애

표 1. 측정 변인간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822)

	불안 애착	회피 애착	자기 대상	정서 자각	수용	탈 중심화	성찰 능력	심리적 역경 후 성장
불안애착								
회피애착	.29**							
자기대상	-.24**	-.35**						
정서자각	-.38**	-.34**	.29**					
수용	-.57**	-.24**	.25**	.45**				
탈중심화	-.34**	-.16**	.21**	.57**	.55**			
성찰능력	-.24**	-.28**	.25**	.51**	.30**	.44**		
심리적 역경 후 성장	-.17**	-.29**	.32**	.41**	.23**	.39**	.52**	
M	2.37	2.72	3.71	3.52	3.35	3.29	3.78	4.08
SD	0.63	0.53	0.93	0.44	0.62	0.62	0.65	0.92
왜도	.31	-.05	-.67	.10	-.33	-.03	-.38	-.42
첨도	-.20	-.22	.01	-.02	-.23	.20	.47	.07

**p<.01

착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자기대상, 정서자각, 수용, 탈중심화, 성찰능력, 그리고 심리적 역경 후 성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대상, 정서자각, 수용, 탈중심화, 그리고 성찰능력과 심리적 역경 후 성장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4를 넘지 않아 구조방정식 모형을 위한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우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단일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잠재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 (1998)의 제안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3개의 문항꾸러미를 구성하여 각 꾸러미 값을 잠재변수 구인에 사용하였다(김민선, 서영석, 2009). 각 문항꾸러미들이 비슷한 수준에서 해당 잠재변인을 반영할 때 꾸러미 효과가 최대화된다는 Russell 등(1998)의 주장을 근거로 잠재변인 별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각 꾸러미들이 잠재변인에 대해 동일한 요인부하량을 갖도록 문항들을 묶었다. 불안애착, 회피애착, 자기대상, 정서자각, 심리적 역경 후 성장의 개념에 대한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N=822)

			B	β	S.E.	C.R.(t)
불안애착	→	불안애착1	1.00	.83		
	→	불안애착2	1.18	.91	.04	31.25***
	→	불안애착3	1.18	.87	.04	30.02***
회피애착	→	회피애착1	1.00	.80		
	→	회피애착2	1.09	.86	.04	25.68***
	→	회피애착3	1.11	.84	.04	25.17***
자기대상	→	거울 자기대상	1.00	.90		
	→	이상화 자기대상	1.34	.95	.03	46.02***
	→	쌍둥이 자기대상	.81	.95	.02	46.05***
정신화	→	수용	1.00	.60		
	→	탈중심화	1.28	.69	.08	16.94***
	→	정서자각	1.93	.77	.13	15.38***
	→	성찰능력	1.17	.66	.08	14.15***
심리적 역경 후 성장	→	자가지각의 변화	1.00	.96		
	→	대인관계 깊이 증가	.68	.76	.03	25.71***
	→	새로운 가능성 발견	.38	.68	.02	22.06***
	→	영적 종교적 관심 증가	.29	.55	.02	16.88***

*** $p < .001$

모든 잠재변인 간 상관을 가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chi^2(df=107, N=822)=653.306, p < .001, TLI=.923, CFI=.939, NFI=.928, RMSEA=.079$). 또한,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은 불안애착이 .83~.91, 회피애착이 .80~.86, 자기대상이 .90~.95, 정신화가 .60~.77, 심리적 역경 후 성장이 .55~.96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에 17개의 측정변인으로 5개의 이론적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표 2).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 2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기대상을 부분 매개로 정신화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화가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좋게 나왔다, $\chi^2(df=110, N=822)=675.545, p < .001, TLI=.922, CFI=.937, NFI=.926, RMSEA=.079(90\% \text{ 신뢰구간}=.073-.085)$. 또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기대상을 부분 매개로하여 정신화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화가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표 3. 연구모형, 경쟁모형1, 경쟁모형2의 적합도 지수 비교 (N=822)

	χ^2	df	TLI	CFI	NFI	RMSEA
연구모형	675.545	110	.922	.937	.926	.079
경쟁모형1	826.761	112	.903	.920	.909	.088
경쟁모형2	670.628	109	.922	.937	.926	.079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기대상을 통하여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쟁모형 2의 적합도 역시 양호한 수준이었다, $\chi^2(df=109, N=822)=670.628, p<.001, TLI=.922, CFI=.937, NFI=.926, RMSEA=.079$ (90% 신뢰구간=.074-.085). 반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기대상을 완전 매개로하여 정신화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정신화가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쟁모형 1은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2에 비해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112, N=822)=826.761, p<.001, TLI=.903, CFI=.920, NFI=.909, RMSEA=.088$ (90% 신뢰구간=.083-.094). 각각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2는 서로 내재적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간에는 χ^2 의 차이검증을 통하여 우수모형을 선정하였다. 살펴보면 이들의 χ^2 의 차이는 4.917로, 자유도(df) 차이가 1인 상태에서 유의확률 .05 수준의 χ^2 분포 임계치 3.84보다 큰 값을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Delta\chi^2(1)=4.917, p<.05$). 따라서 경쟁모형 2가 연구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4에 제시한 최종모형에 따르면, 불안애착은 자기대상($\beta=-.15, p<.001$)과 정신화($\beta=-.38, p<.001$)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나타냈고, 회피애착도 자기대상($\beta=-.34, p<.001$)과 정신화($\beta=-.23, p<.001$)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자기대상은 정신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17, p<.001$) 또한, 심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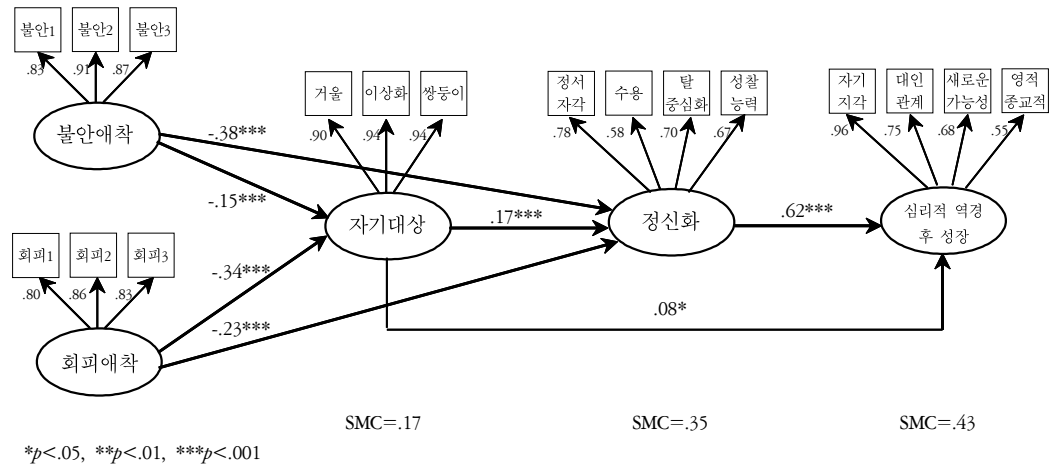


그림 4. 최종모형

표 4. 효과분해 및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결과 (N=822)

		표준화 직접효과	표준화 간접효과	표준화 총효과	Bootstrapping	
					Lower	Upper
불안애착	→ 자기대상	-.15***		-.15		
	→ 정신화	-.38***	-.03**	-.41	-.049	-.011
	→ 심리적 역경 후 성장		-.26**	-.26	-.324	-.202
회피애착	→ 자기대상	-.34***		-.34		
	→ 정신화	-.23***	-.06**	-.29	-.095	-.029
	→ 심리적 역경 후 성장		-.21**	-.21	-.272	-.141
자기대상	→ 정신화	.17***		.17		
	→ 심리적 역경 후 성장	.08*	.11**	.19	.055	.169
정신화	→ 심리적 역경 후 성장	.62***		.62		

* $p < .05$, ** $p < .01$, *** $p < .001$

역경 후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8, p < .05$). 그리고 정신화는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2, p < .001$). 채택된 모형은 심리적 역경 후 성장 변량의 43%를 설명하고 있다.

불안정 성인애착이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대상 및 정신화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든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또한 정신화와 자기대상에 있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부적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 검증하기 위하여 Fisher's z-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신화에 미치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부적 영향력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Z = -3.36, p < .001$), 자기대상에 있어서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부적 영향력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 = 4.11, p < .001$). 즉, 정신화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은 회피애착보다 불안애착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대상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은 회피애착보다 불안애착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경로계수의 차이검증 (N=822)

	불안애착	회피애착	Fisher's z-test
정신화	-.38***	-.23***	-3.36***
자기대상	-.15***	-.34***	4.11***
Fisher's z-test	-5.04***	2.43*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역경을 겪은 것으로 보고한 성인을 대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이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 이 과정에 정신화와 자기대상이 어떻게 관여하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불안애착, 회피애착이 자기대상과 정신화를 부분매개로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경쟁모형 2의 적합도가 가장 좋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심리적 역경을 통해 내재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자기대상과 정신화가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역경 당시의 자기대상 경험은 정신화를 증대시켜 간접적으로 심리적 역경 후 성장으로 이어지는 한편 직접적으로도 심리적 역경 후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김진수, 서수균, 2011; 신선영, 2009; 유희정, 2012)은 성찰능력 혹은 사회적 지지 등의 개별적, 인지적 변인 혹은 사회적 변인을 중심으로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내면화 할 수 있는 심리내적 변인으로 자기심리학에서 제시한 자기대상을 지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대상을 타인의 인정과 공감으로 자기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울 자기대상’,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고 불안을 완화하는 ‘이상화 자기대상’, 그리고 타인의 말 없는 현존으로 내적인 삶을 이해받는 ‘쌍둥이 자기대상’(Kohut, 1984; Siegel, 1996)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심리적 역경 후 성장의 핵심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성찰능력을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수용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는 포

괄적 인지 및 정서 능력인 정신화의 개념으로 확장한 의의가 있다.

셋째, 불안정 성인애착이 높을수록 건강한 자기애를 대표하는 거울, 이상화, 쌍둥이 자기대상 경험이 적어졌다. 그리고 자기대상 경험이 적을수록 정서자각, 수용, 성찰능력, 탈중심화를 감소시켜 심리적 역경 후 성장을 저해했다. 한편 불안정 성인애착이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정신화가 자기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왔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자기대상과 정신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그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자기대상 경험보다 정신화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으며,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정신화 능력보다 자기대상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적 대처 양식, 그리고 정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과 조직화라는 대처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불안애착의 경우에 회피애착과 달리 과잉활성화 전략으로 인해 심리적 역경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크게 지각하며, 그로 인한 감정의 홍수에 빠지기 쉬워, 그 정서를 유발한 현상에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정서자각, 수용, 탈중심화, 그리고 성찰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저해되는 것 같다. 반면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의미있는 타인들로부터 거리를 둬으로써 자기대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회 자체가 적어져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보통수준 이상의 심리적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정도가 타인을 심리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역경에 관련된 정서조율 및 자기성찰

능력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자기대상과 정신화 능력이 심리적 역경 후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는 역경을 경험한 내담자의 상담 과정에서 자기대상 및 정신화 능력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담 과정에 내담자의 애착 유형에 따라 개입전략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안애착유형의 내담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정신화에 더 초점을 맞추어, 역경으로 인한 정서를 자각하고, 수용하며, 이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험의 의미를 성찰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이다. 회피애착유형의 내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기대상의 탐색에 더 초점을 맞추고, 상담자를 내적 자기대상 즉, 심리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계형성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크다.

본 연구결과는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서 심리적 역경을 경험한 내담자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설문 대상이 된 1000명 중 822명이 심리적 역경으로 인해 보통 수준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역경을 통하여 심리적 성장을 했다고 하였다. 이는 우선 역경을 경험한 개인의 심리적 현실 속에 고통스럽고 병들어가는 부분과 성숙을 향한 동기가 공존한다는 심리적 역경 후 성장의 이론적 주장을 지지한다. 그리고 상담 장면에서는 심리적 역경으로 인한 병리적 증상의 제거 혹은 완화에 대한 노력과 동시에 심리적 성장을 도모하는 요인들에 대한 개입이 중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서 빈번히 관찰되나 경험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자기심리학과 정신화 관련 개념을 구체적으로 탐색한 의의가 있다. 정신화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이현주, 안명희, 2012;

Alsarraf & Nilsson, 2009; Graling & Liem, 2012; Newbury-Helps, 2011)들은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 정신화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련성만을 탐색했다. 본 연구는 정신화와 심리적 성장이라는 적응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의의도 있다. 상담의 계기가 되는 심리적 역경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는 역경 체크리스트에 존재하는 16가지 유형 모두를 역경의 범위에 포함시켜 심리적 역경 후 성장 관련 연구를 확장하는 시도도 하였다. 한편 기존의 심리적 역경 후 성장 관련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대~50대로 대상연령을 확대하여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했다. 심리적 역경 후 성장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역경에 동반되는 고통의 정도로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심리적 고통의 정도가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를 역경이라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 즉, 역경의 정도에 대한 기준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적어도 보통 수준 이상의 역경이 상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5점 만점(1=고통스럽지 않았다, 5=매우 고통스러웠다)기준으로 3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장점도 있다. 하지만 선정된 범위 내에서 고통의 개인차를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한 한계도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고통의 정도에 따른 심리적 역경 후 성장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자기대상은 이론적 개념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험연구의 대상이 된 바 없어, 실증적인 선행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대상의 관계에 대해 개념적인 논의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간접적인 근거로 제시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자기대상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도구의 개발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기대상의 관련성,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대상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겠다. 정신화 역시 치료장면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나, 그 조작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측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정신화에 대한 일치된 정의와 적절한 측정도구의 개발도 중요하다. 자기대상과 정신화는 애착 혹은 관계적 외상 경험을 중심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후속연구에서는 심리적 역경 중 관계적 외상을 반영하는 대인관계 과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본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 김계수 (201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민선, 서영석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25-545.
- 김빛나 (2008). 탈중심화가 내부초점적 반응양식과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 (2004). 친밀관계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수, 서수균 (2011). 친밀한 관계경험과 성장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93-809.
- 김희정, 권정혜, 김종남, 이란, 이견숙 (2008). 유방암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781-799.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 (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현 (2011). 심리적 강인성과 정서지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대처를 매개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선영 (2009).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 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명희 (2010).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67-885.
- 안하얀, 서영석 (2010). 성인애착,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75-603.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 유영란 (2006).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의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의 매개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윤경 (2011).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우울: 심리적 수용과 탈중심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 (2012).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 (2001).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지각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현주, 안명희 (2012).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 애착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13-434.
- 최승미 (2008).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재홍, 최명식, 진현정 (2009). 한국어판 수용-행동 질문지 2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61-878.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산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이화 (2011). 하인즈 코헷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I.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Allen, J. G., Fonagy, P., & Bateman, A. W. (2008). *Mentalizing in clinical practice*. Washington: American Psychiatric Press.
- Alsarraf, J. J., & Nilsson, Y. (2009). *Reflecting around the functions behind depression: A correlational study of depression, mentalization and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Linköping University. Sweden.
- Blumenthal, J. A., Burg, M. M., Barefoot, J., Williams, R. B., Haney, T., & Zimet, G. (1987). Social support, type A behavior, and coronary artery disease. *Psychosomatic Medicine* 49, 331-340.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Cassidy, J., & Kobak, R. R. (1988). Avoidance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defensive processes. In J. Belsky &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300-323).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hoi-Kain, L. W., & Gunderson, J. G. (2008). Mentalization: Ontogeny, assessment, and application in the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9), 1127-1135.
- Collins, N. L., & Feeney, B. C. (2000). A safe haven: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on support seeking and caregiving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6), 1053-1073.
- Fonagy, P. (1991). Thinking about thinking: some clin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treatment of a borderline pati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2(4), 639-656.
- Fonagy, P. (2005). 애착이론과 정신분석[*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sis*]. (반건호 역). 안양: 빈센트(원전은 2001에 출판).
- Fraley, R. C., & Shaver, P. R. (1998). Airport separations: A naturalistic study of adult attachment dynamics in separating couple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5), 1198-1212.
- Fresco, D. M., Moore, M. T., Dulmen, M. H. M., Segal, Z. V., Ma, S. H., Teasdale, J. D., & Williams, J. M. G. (2007). Initial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xperiences Questionnaire: Validation of Self Report Measure of Decentering. *Behavior Therapy* 38, 234-246.
- Graling, K., & Liem, J. (2012). *The Impact of Interpersonal Functioning and Emotion Regulation on the Behavioral Symptom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Personal Communication.
- Joseph, S., & Linley, P. A. (2009). 긍정심리치료[*Positive Therapy: A Meta-Theory for Positive Psychological Practice*]. (이훈진, 김 환, 박세란 공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6에 출판).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1), 135-146.
- Kohut, H. (1966). Forms and Transformations of Narcissism.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4(2), 243-272.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84).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11-21.
- Linley, P. A., & Joseph, S. (2005). The human capacity for growth through adversity. *American Psychologist*, 60(3), 262-264.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 Newbury-Helps, J. (2011). *Are difficulties in mentalizing associated with severity of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D. Clin. Psy. the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2011). Discovery UCL.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S.,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 health* (pp.125-1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aefer, J. A., & Moos, R. H. (1992). Life crises and personal growth. In B. N. Carpenter (Ed.), *Personal coping: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149-170).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 Siegel, A. M. (1996). *Heinz Kohut and the Psychology of the Self*. New York: Routledge.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nesota.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Wallin, D. J. (2010). 애착과 심리치료[*Attachment in Psychotherapy*].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공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7에 출판).
- Wei, M., Vogel, D. L., Ku, T. 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4-24.
- 원 고 접 수 일 : 2013. 04. 11
수정원고접수일 : 2013. 06. 20
게 재 결 정 일 : 2013. 09. 26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Adversarial Growth: Mediating Role of Selfobject and Mentalization

Te-Sa Kim

Myunghee Ahn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adversarial growth. Data based on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a sample of 822 males and females with previous trauma were analyzed. Findings indicated that the hypothesized model, in which the influence of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on adversarial growth was partially mediated by selfobject and mentalization, showed the best model fit. Both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exhibited negative influence on selfobject and mentalization. Selfobject presented positive influence on mentalization and adversarial growth. Mentalization showed greater influence on adversarial growth than selfobject. Third, the pathways of influence from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to adversarial growth were separate. Attachment anxiety exhibited greater influence on mentalization than attachment avoidance. However, the greater the attachment avoidance, the more compromised was selfobject. Implications of current findings for counseling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adversarial growth, insecure adult attachment, mentalization, selfobject.